

GBR 성공의 노하우

박진우 교수 (Prof. Park JW)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임플란트 식립 또는 보철시술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여러 형태의 치조골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골증대수술(bone augmentation surgery)을 시행한다. 적절한 임플란트의 고정과 심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절한 치조제의 폭경과 고경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골증대수술에는 블록형 자가골이식, 차단막을 이용한 골유도재생술(guided bone regeneration: GBR), 상악동 골이식술 등이 포함되며 많은 임상결과를 통해 이러한 술식의 장기적 성공률이 보고되었다. 본 강좌에서는 이중에서 차단막을 이용한 GBR술식을 시행시 성공적인 골재생의 결과를 얻기 위한 생물학적, 외과적 고려사항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GBR술식은 치주인대, 백악질, 치조골 등을 포함한 여러 조직의 조화로운 재생을 필요로 하는 치주치료에서의 조직유도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tion)의 개념에 비해 골조직의 재생만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단순하지만, 치주치료에서와는 달리 골조직의 재생이 요구되는 부위가 비교적 광범위하고, 또한 비교적 더 침습적인 부가적인 시술이 필요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지성 있는 골조직 재생을 동반한 성공적인 GBR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술기법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골이식재의 특성과 치유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생물학적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강좌에서는 GBR과 연관한 골결손부의 특성과 관련한 골치유과정, 이러한 결손부에서 골전도성의 이식재가 가지는 골재생에 있어서 한계점, 그리고 신생골 형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식재료의 적절한 혈액공급과 시술부위와 임플란트의 안정화와 초기고정의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외과적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공적인 GBR을 위한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술의 목적과 시술부위 골결손부의 치유특성에 관한 이해, 적절한 이식재료의 사용, 그리고 골재생을 유리하게 하는 외과원칙의 준수 등이 모두 조화된 접근만이 GBR성공의 결과를 증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학력 및 경력: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조교수

POSTECH 신소재공학과 파견교수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및 경북대학병원 치주과 수련